

청소년들의 잠재된 끼를 발산하다

광주학생연극제, 18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광주 소재 고등학교 10개팀 무대서 경연

유·스퀘어문화관과 광주연극협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광주학생연극제가 지난 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열리고 있다.

광주학생연극제는 광주연극협회가 주최하는 고등학생들의 연극 축제로 10일 동안 광주 소재 고등학교 총 10개팀이 경연을 펼친다.

올해로 29회째를 맞으며 그동안 청소년들의 희곡문학과 공연예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광주 연극 발전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9일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첫번째 경연을 펼친 전대사대부고 팀은 '방황하는 별들'을 무대에 올렸다.

이날을 시작으로 △10일 금호고 팀의 '마지막 이벤트' △11일 상일여고 팀의

'잡뽕' △12일 광주제일고 팀의 'HOME' △13일 성덕고 팀의 '난 혼자야' △14일 전남고 팀의 '꿈꾸러기' △15일 문정여고 팀의 '아카시아 꽃잎은 떨어지고' △16일 동신여고팀의 '우리 집이야' △17일 전남여고 팀의 '늙은 소녀들의 왕국' △18일 장덕고 팀의 '우아한 거짓말'이 차례로 무대에 오른다.

모든 공연은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하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한편 유·스퀘어 문화관은 예술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 한국연극협회와 광주학생연극제에 관한 후원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유·스퀘어 문화관은 광주학생연극제를 위해 공연장을 무료로 대관해 주고, 각종 문화사업을 진행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적극적인



제29회 광주학생연극제 첫번째 경연 팀으로 9일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전대사대부고 팀의 '방황하는 별들'이 공연되고 있다.

인 지원을 펼쳐오고 있다.

제29회 광주학생연극제 시상식은 18일에 열리며, 우수한 팀은 제22회 전국청소년연극제 본선에 자동 출전하게 된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전남여고 연극반

이 광주학생연극제 대상을 수상하면서 올해도 연극 명문의 전통을 이어갈 지, 아니면 새로운 학교가 대상의 영광을 거머쥘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연수 기자

주목받는 아시아문화예술 아카이브

ACC아카이브 국내·외 유관기관 활용 늘어



이경모의 1962년 작 '이화여자대학교 5월의 여왕 선발대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아시아 문화예술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과 활용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과 5월에 개최한 에비스국제영상제(일본)와 오버하우젠 국제단편영화제(독일)에서 ACC 아카이브의 소장 영화가 초청 상영됐다.

에비스국제영상제는 아사다마치오의 영화 '연쇄살인마(1969)'를, 오버하우젠 국제단편영화제 '아카이브' 섹션에 한옥희의 '구명(1974)', 김구림의 '24분의 1초의 의미(1969)', 테라야마 슈지의 '죄수(1962)', 모토

하루 조노우치의 '설터 플랜(1964)'을 각각 초청했다.

ACC는 지난 2014년부터 '아시아 필름&비디오 아카이브 구축 사업'으로 기존 영화 산업계에서 주목받지 못하거나 소실 위기에 놓인 아시아의 주요 실험 영화를 수집·보존해 아시아 10개국 800여 편의 작품과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특히 아다치 마사오의 영화는 그동안 원본 필름 손상 등의 사유로 비디오로만 소개되어 왔던 것을 ACC가 최초로 복원, 필름으로 상영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영국의 사우스뱅크의 헤이워드 갤러리와 독일 그로 피우스 바우에서 열리는 'Lee bul : Crashing' 전시회에서도 ACC는 '이화여자대학교 5월의 여왕 선발대회(1962년, 이경모)' 사진을 제공한다. 1960~2000년대 한국의 여성과 예술을 살펴볼 수 있는 타임라인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시아의 사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첫 시도로서 ACC는 한국 사진사의 주요 인물에 대한 연구와 수집 활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로 이경모의 사진을 비롯해 강봉규, 전재홍, 조춘만, 정정희, 김한용의 사진과 구술 채록 자료 등 2만 4,000여 점을 확보했다.

ACC는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 활동을 지속해 현재까지 18만여 점의 아카이브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다.

아시아의 스토리, 암각화, 전통 춤·음악, 의례·축제, 소수민족의 무형문화유산 기록 자료와,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의 근현대사에 초점을 맞춰 연구·수집된 아시아의 건축, 공연, 퍼포먼스 아트 등 13개 주제별 컬렉션이 대표적이다.

수집된 아카이브 컬렉션 및 자료는 ACC 아카이브 누리집(archive.acc.go.kr)을 통해 검색·열람이 가능하며, 올해 말까지 5만 여점이 서비스 될 예정이다. 아카이브 자료는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연구 및 콘텐츠 창·제작시 활용 가능하다. /이연수 기자



5·18민중항쟁 정신계승을 위한 상설음악회 '오월의 노래'가 막을 내렸다. 27일동안 약 300여명의 국내외 음악인들이 무대를 꾸몄으며, 2,500여명의 관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광주의 5월을 노래했다.

민주와 평화의 외침

오월 상설음악회 '오월의 노래' 성료

지난 5월 한 달 동안 5·18민주광장을 노래로 가득 채웠던 5·18민중항쟁 정신계승을 위한 상설음악회 '오월의 노래'가 막을 내렸다.

올해 행사는 27일 동안 300여명의 국내외 음악인들이 무대를 꾸몄으며, 누적 수 2,500여명의 관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광주의 5월을 노래했다.

60여 팀이 참여한 이번 공연에서는 민중가요 뿐만 아니라 인디밴드, 아이카펠라, 국악, 재즈, 합창,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였다. 올해 70주년을 맞이한 제주 4·3을 비롯해 대구 2·28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 세월호참사, 촛불집회에 이르는 우리시대 아픔과 송고한 희생들이 광주의 오월정신과 어우러져 대중들과 공감하며 평화의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는 평이다.

한편 오월의 노래는 1980년 이후 전국의 음악인들이 광주에 모여 전제와 폭압에 저항하는 삶의 가치를 노래하며 자발적으로 이끌어 온 '거리음악제'의 명맥을 잇는 행사다. 5월 1일 문을 열어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금남로와 충장로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음악으로 5월 정신을 전했다. /이연수 기자

목관악기로 듣는 친숙한 영화음악

광주문화재단, 오늘 상반기 마지막 월요콘서트

활기찬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 월요콘서트가 11일 상반기 마지막 공연 P&S Woodwind Quintet '자연의 울림 그 숨소리'를 무대에 올린다.

P&S Woodwind Quintet은 목관앙상블 단체로 P와 S는 각각 열정과 나눔을 뜻한다.

이들은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호른, 바순을 연주해 목관악기의 아름다움을 전달한다. 이번 공연에서 연주될 곡은

'마이페어레이디 I Could Have Dance All Night', '사랑은 비를 타고 Singing in the Rain', 애니메이션 '천공의 성리피아타', '아웃집 토토로메인테마곡' 등이다.

공연은 11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열리며, 하반기 공연은 오는 9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입장료 5,000원~1만 원. 선착순 100명. 문의 062-670-7943. /이보람 기자



경매 투자

- ▶경매특수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특수물건만 취급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자본금 1억이상
- ▶월15% 이상 수익
- ▶소유권/근저당으로 보장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